

주민과 공유... 전북대 '공감터길' 조성

정문~구 정문 길에 시민과 공감·소통하는 생태숲·프리마켓·갤러리 레드박스 공간 만들어

전북대학교가 정문에서 구 정문에 이르는 길을 지역민과 함께 걷는 '공감터길(녹색 예술의 거리 나눔숲 조성 사업)'로 조성, 개막식을 가졌다. 대학측은 이 길을 생태 경관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길로 꾸며 대학과 지역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호 총장과 신원섭 산림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운영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 등이 참여해 함께 공감터길 개장을 축하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공감터길'은 전주 녹색예술거리 지역 사회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전북대, 전주시 등이 9억 원을 투입해 전북대 정문에서 구 정문 구간의 외곽길을 생태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길로 조성한 것.

전북대는 숲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혜택을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구간의 인도를 캠퍼스 안으로 끌어들이며 누구나 편하게 편하게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

다. 공감터길에는 꽃과 수목이 우거진 숲과 전시관, 대학과 지역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감터 등을 조성했고, 5개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해 전북대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운영된다.

또 예술작품 전시관인 '갤러리 레드박스'는 미술학과 학생들의 작품전을 시작으로 도내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전북대는 공감터길 외에도 구 정문에서 덕진공원까지 1.05Km 구간의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층이 안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 역시 도로와 맞닿은 캠퍼스 부지를 제공, 교목과 관목 1만여 주를 식재해 숲을 조성하고 교통 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복재데크길과 산림치유벤치, 쉼터, 산림체험활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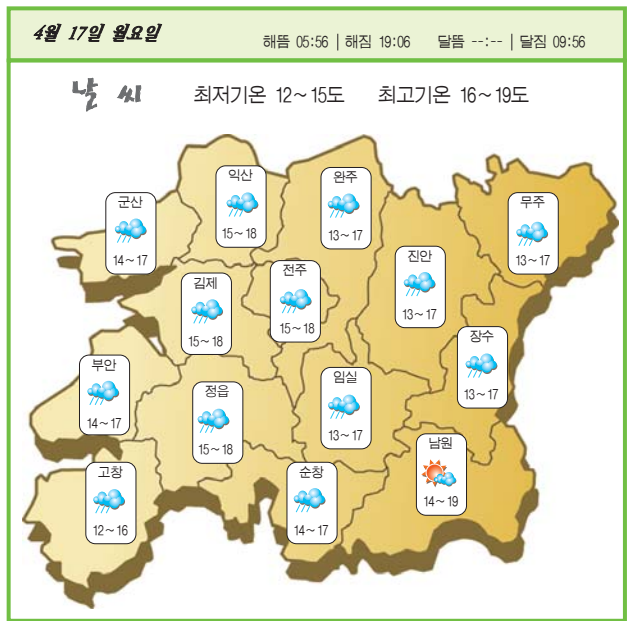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전북대는 정문 앞에 조성



전북대학교가 정문에서 구 정문에 이르는 길을 지역민과 함께 걷는 '공감터길'로 조성. 이남호 총장과 신원섭 산림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여해 개막식을 가졌다.

된 '전대 힐링숲'과 구정문에 이르는 '공감터길', 덕진공원까지의 '무장애 나눔길'을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11.4Km의 캠퍼스 명품 둘레길과 연계해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캠퍼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남호 총장은 "공감터길은 캠퍼스

와 접한 인도를 대학 안으로 끌어들이며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호흡하는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품 둘레길을 연계해 우리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시민감사관, 교육정책 감사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등 6건 대상 17~28일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2017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시감사가 17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 보완,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시감사는 28일까지 열흘 간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소프트웨어(코딩)교육 △교원의 원격교육 △학교급식 모니터링 △교육시설의 내진 △학교시설 설계용역 △민간보조(위탁)에 관한 사항 등 6건이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앞두고 5개(시설

과 2개 사업) 담당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시민감사관은 이번 실시감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감사관 실시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 학생 모집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중·고생 대상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4일까지 제 12기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창의기술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기술친화적 마인드 확산 및 창의적 기술소양 증진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전북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매년 봄·가을학기 청소년 창의기술아카데미를 개최해 왔다.

제12기 교육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App Inventor 프로젝트 교육과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App Inventor 프로젝트 과정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내달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진행되고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과정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2회 교육 및 8월 7~9일까지 2박 3일 여름캠프로 진행될 예정이다.

App Inventor 프로젝트 및 스마트 팜

자율주행로봇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ICT 융합 스마트기술 특강 및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방학 집중 캠프에는 팀별 프로젝트 관련 UCC 제작 및 이공계 진로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져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선발 학생은 모든 교육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모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자 및 선발인원은 호남·제주 권역 내 중·고등학생 중 기술·과학 담당 또는 담당교사 추천을 받은 학생 80명 내외이며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홈페이지(<http://tstar.or.kr/tree/jnu/>) 공지사항에 첨부된 참가지원을,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처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정해은 기자



아프리카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 나서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모로코 국제교류단 협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추진단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와 모로코 국제교류재단(IMRI)과 상호 협력 및 교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3일 오후 코어사업단장실에서 이종민 코어사업단장과 조화림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장, 케르두다-코라리시디 자와드 모로코 국제교류단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코어사업

추진단의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는 모로코 국제교류재단과 상호 협력 및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 및 교육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 시설 및 출판물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아프리카, 지중해 비즈니스 전문 인재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 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생·학자 간 교류 및 학술 연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 관련 각종 학술 활동을 추진하는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미세먼지 기상특보 시 '실외활동 자제'

도교육청,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가이드라인'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 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기상특보 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µg/m³로 주의보단계가 내려지면 학생들은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800µg/m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일선 학교는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6~9월) 최고기온 35°C 이상이 2일 이상 폭염이 지속되거나 태풍경보(주의보) 등 강풍이나 강우량 200mm 이상이 예상될 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도교육청은 학생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안내하고 일선 학교는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결정해 통신문 등을 이용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학교는 관내 교육지원청에 조치상황을 즉각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현황을 취합해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